



◁전각이 표현하는 오묘함과 광활함을 느껴보라고 말하는 심무용 씨.

“‘쓸데 없음’은 텅 빈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흙을 개어 그릇을 만들 때 오목히 빈 데가 있어야만 그릇의 구실을 하듯이 말예요. 대부분 ‘쓸데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매우 싫어하지요. 그런데 ‘쓸데 없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텅 비워 그 빈 마음에 모든 것이 자유롭게 노닐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야죠.”

무용(無用) 심 군(59·沈君)씨는 자신의 호이자 법명인 ‘무용(無用)’에 빚대 ‘무용론(無用論)’을 펼쳤다. 심무용 씨는 새 봄을 맞아 지난 2월 부산 초량동 프랑스로부터 전각전시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다양한 작품중 특히 64개 돌에 새긴 <반야심경>은 각기 다른 모양과 글씨체가 독특한 맛을 주어 관심을 끌었다.

심무용씨는 1959년 불화로 예술인생을 시작, 44년 동안 서예, 미술, 전각 등 다방면에서 예술가의 삶을 살아왔다. 1945년 중국 간도에서 태어난 그는 같은 해 5월 아버지를 잃었다. 일본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아버지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불심이 깊었던 그의 모친은 수소문 끝에 당시 진주 의곡사 주지로 있던 석정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에게 14살의 어린 무용을 맡겼다.

그는 출가가 ‘무용’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처음에는 스승을 따라 불화를 그렸다. 그러다가 석정스님이 전각가로 이름을 날렸던 운여 김광업 선생에게

보내 전각을 배우게 했다. 조그마한 돌표면에서지만 그는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전각에 매료됐다. 그림처럼 공간적인 배치나 장조를 필요로 하는 전각이 배울수록 재미있었던 것이다.

“어른 스님들이 전각을 못하게 해서 산에 가서 몰래 연습했는데 내가 좋으니까 열심히 했지요.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날 새는 게 예상이었어요.”

한 달에 두번, 운여선생이 있는 부산까지 찾아가는 그의 바람에는 스승의 점점을 받을 전각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운여 선생은 기독교 장로였지만 뛰어난 재주를 가진 승려 제자인 그를 유독 아꼈다.

“몇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기본에 충실하고 정석을 따르다 보면 멋진 것은 저절로 우러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지요.”

그는 점점 전각의 세계에 매료되어 갔지만 전각을 잔재주로 여겼던 어른스님들의 꾸중은 날로 심해졌다. 해인사, 통도사 승가대학을 거처며 경전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자 그를 강사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는 강사 소임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쳤고, 그때 반야심경 전문을 돌에 새겼다. 이후 더욱 작품활

“‘쓸데 없음’ 도리 알아야 잘 쓰죠”



전각가 심무용 씨

등에 몰두해 선사화와 전각으로 69년부터 국내는 물론 미국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어 예술을 통한 부처님가르침 전파에 나섰다.

그는 전각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 속세로 돌아왔다. 환속을 만류하는 어른 스님을 하루종일 설득한 끝에 선택한 그의 전각 인생은 ‘무용론(無用論)’로 불리는 그만의 독특한 전각 세계로 승화되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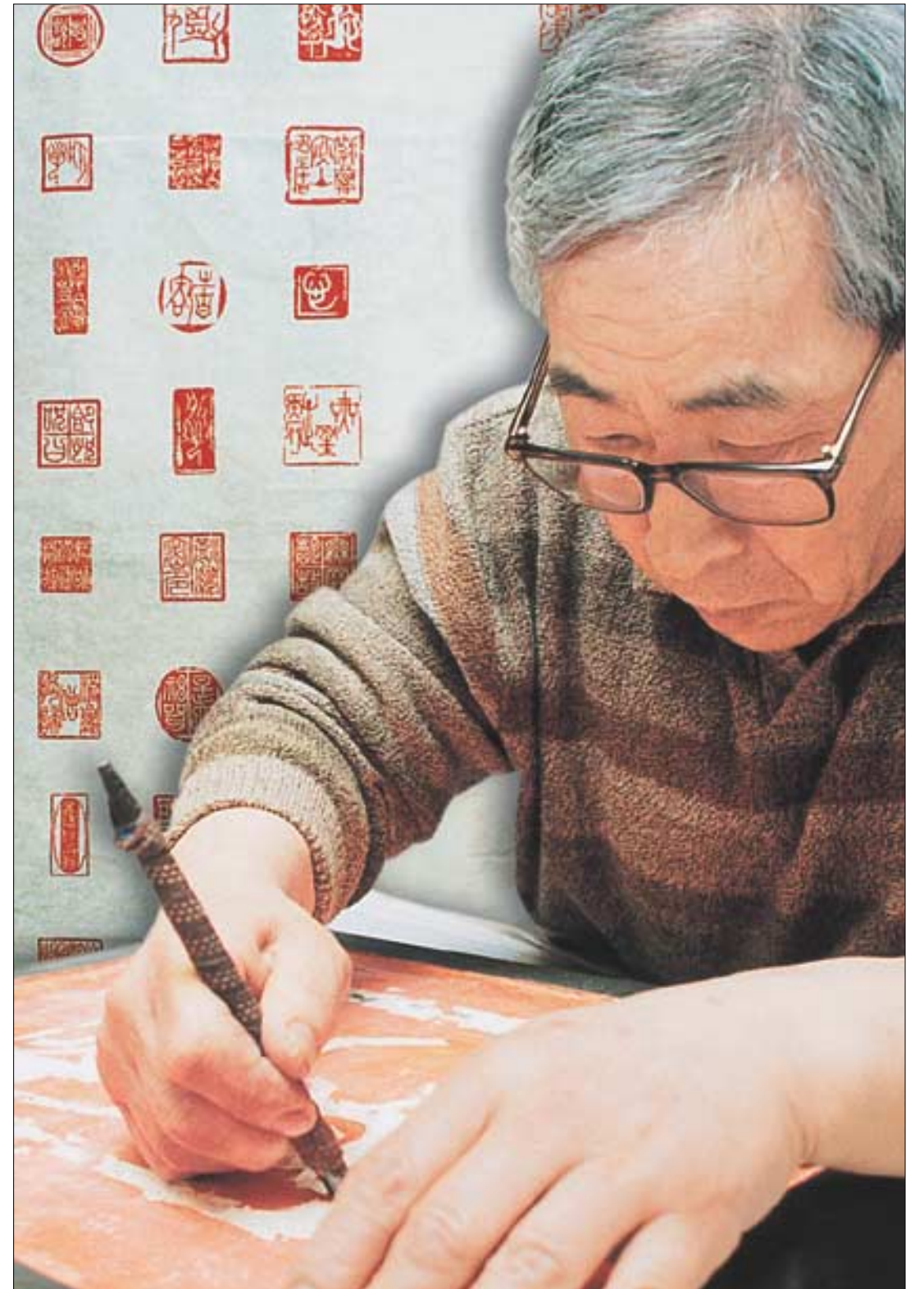
전각은 단순히 새기는 예술이 아니다. 서예는 물론, 미술, 조각, 시(詩) 등이 어우러져야 하는 종합예술이다. 좁은 인면(印面)에 한정된 문자를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이들이 많은 전각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데는 ‘쓸데 없음’의 경지를 알아야 한다는 무용론(無用論)이 한 몫을 했다.

“새긴다는 것은 또 다른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겉으로 나타낸 것 뿐 아니라 비어있는 곳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여백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밝고 좋아질 거예요”

새기되 여백을 두고, 거꾸로 새기되 찍으면 바른 모양을 드러내는 그의 전각에는 전도몽상(顛倒夢想)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 느껴진다. 그는 나무, 돌, 도자기, 상아, 호박꼭지, 동(銅), 은(銀) 등 소재를 가리지 않고 새겼고 염색한 타조알에 반야심경을 새겨 넣는 독특한 시도로 호응을 얻었다. <무용인존(無用印存)> <독화실 인존(讀畫室 印存)> 등 2권의 작품집도 출간했다.

심무용 씨는 1998년 불의의 사고로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중환자실에 50여일 째 누워있다가 의식이 돌아왔지만 그는 부인과 아들조차 알아보지

다시 시작했어요.” 그는 전각을 다시 시작하면서 빠르게 회복했다. 석정스님은 사고 이후 그가 한 전각을 한번 보시더니 “이제 걱정할 것 없다. 살 수 있겠다”고 했을 정도로 전각은 그의 생명이요, 분신(分身)이었다.



◁64개의 돌에 새긴 <반야심경>. 심무용 씨는 의상스님의 법성계와 금강경 전각도 구상하고 있다.

44년 동안 서예·미술·전각 활동 반야심경·금강경·선시 등 전각으로 ‘無用體’로 일가 이뤄...작품집도 출간

못했다. 언어 장애로 의사소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초인적인 인내로 병마와 싸웠다. 병상에서 틈틈히 참선을 했다. 부인은 회복에 도움을 줄 요량으로 그의 분신과도 같은 전각 작품집과 작업 중이던 부채를 침대에 갖다놨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부채에 그려진 그림의 낙관자리에 도장을 그려놓았던 것이다.

“그때부터 전각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 전각을

발명특허원 15826호

어머니 청국장 발효기 (荳土)

– 진이 잘 나지 않으면 배상하여 드립니다.



- ◇ 가격: 77,000원 (중균, 볶질, 약콩 1회용 포함)
- ◇ 모델명: KT-870
- ◇ 발효용량: 276 × 305 × 322
- ◇ 사용전압: 220V
- ◇ 정격소비전력: 73w
- ◇ 무게: 3.7kg

제품의 특징

- ◇ 생으로 먹을 때는 낫도, 찌개로 먹을 때는 청국장으로 만들 수 있다.
- ◇ 냄새를 안나게 할 수도, 진하게 할 수도 있다.
- ◇ 무염 발효식으로 염도 조절이 가능.
- ◇ 질 좋은 국산콩을 선택하여 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
- ◇ 요구르트는 너무나 잘 된다.

편치볼 서리태(속칭) 할인판매!

- ◇ 무농약 고랭지 콩이라 맛이 좋습니다.
- ◇ 밥에 검은 물이 들지 않습니다.
- ◇ 향암 효과로 알려진 「아이소 플라본」이 평야지 콩보다 무척 많이 들었 있습니다.
- ◇ 가격 12,000원(Kg당) 할인 → 9,000원

우리콩운동본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25-1 신청: Tel.(033)481-4894

지금 편치볼에는 새역사가 펼쳐집니다.

– 6개의 무농약 콩 작목반, 120만명의 콩단지 조성

● 온라인 : 농협 123-17-000466 정 략 훈